IB 월드스쿨 향해 힘차게

전주아중초, IB PYP 후보학교 첫 승인… MYP 과정 용북중에 이어 두번째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조연순)가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정인 IB PYP(초등과정)는 전주아중초가 첫 승인이다. 도내에서는 6월 말 MYP 과정인 남원 용북중학교에 이은 두 번째다.

IB PYP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국제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그동안 전주아중초는 IB의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을 실제 수업 시간에 반영·실천할 수 있도록 교원이 서로 독려하며, 학생들이 세계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 미래교육을 실천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마인드와 함께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학교는 진정한 학습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주아중초는 이번에 후보학교 승인을 받음에 따라 IB 본부로부터 학교별 컨설턴트를 배정받고, 전 교원이 IB 워크숍을 이수하는 등 월드스쿨 승인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조연순 교장은 "교직원들과 함께 IB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IB 학교 운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IB 후보학교 선정은 전주아중초의 교육적 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6일 대학 창업지원과 창업보육을 통해 지역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25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5개 기업들은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전북대, 대학이 육성한 창업기업들과 네트워크 강화

25개 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1억원 발전기금도 기부

"대학과의 지속 협력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6일 대학 창업지원과 창업보육을 통해 지역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25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여러 창업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에 이른 기업들의 창업 스토리를 적극 발굴하고,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육성 창업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일를 통해 대학과 기업들은 창업기업육성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고, 창업기업으로서의 애로사항 등도 공유했다. 이에 전북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기업들을 예우하고 우수 가족기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이외 기업도 발굴해 기업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5개 기업들은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대는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전북대의 직접적인 지원은 대학의 벤처 창업기업 성공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며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를 이끄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은 우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적극 발굴해 전북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학이 앞장서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중고교생 SW · AI 실력 겨루기

전북자치도교육청, SW교육 코딩캠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4년 SW교육 코딩캠프'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4년 SW교육 코딩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중·고등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및 창의적 활용 능력을 증진시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SW?AI 인재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2022개정 교육과정 정보수업 시수 확대로 SW·AI교육 확산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 6월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8명의 학생이 출전했다. 본선에 참여한 학생들은 데이터와 Chat-GPT API를 활용해 현실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했다.

본선 캠프에서 수상한 학생 20명에게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SW·AI 학생중심 글로벌캠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오는 10월 21~28일 미국에서 진행되는 'SW·AI 학생중심 글로벌캠프'는 MIT·하버드 등 대학교 방문, 터프츠대학교 노벨엔지니어링 캠프 참여, IT 기업 견학, 보스턴·뉴욕·워싱턴의 기술 문화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SW·AI로 구현하는 컴퓨팅사고력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SW교육 코딩캠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학생 27명, 워싱턴주로 글로벌브릿지 캠프 떠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11일까지 미국서 학생 해외연수

MS 본사 방문 · 타코마 지역 학생들과 토론식 수업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피어스 칼리지(Pierce College)에서 '글로벌 브릿지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지난해 12월 서거석 교육감이 피어스 칼리지를 방문해 줄리(Julie) 총장 등 이 학교 관계자와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캠프에는 고등학생 27명과 인솔자 3명이 참가한다. 이에 학생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영어 집중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 워싱턴주 정부 청사, 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 항만청 방문과 타코마 지역 학생들과의 토의·토론식 수업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전공연계 봉사단 링투유 참여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3~25일까지 3일간 전공연계 봉사단 2024 링투유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링투유는 LINC 3.0 사업 참여학과의 전공직무 연계 재능기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순천시 낙안면 교촌마을에서 진행됐다. 전주비전대를 비롯해 가톨릭상지대, 구미대, 군장대, 동서울대, 동의과학대, 명지전문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순천제일대, 연암공과대, 울산과학대, 유한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한양여대 등 17개 전문대학 참여했다. 각 대학의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은 가스·전기안전, 소방안전, 재활건강, 이·미용, 제과제빵, 건강·안전, 건강관리, 치아건강, 응급처치, 정보통신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는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노후된 형광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전기공학과 노유민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기회를 가져 감사하다"며 "마을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지도한 전기공학과 이주연 교수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기특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조와 청렴 실천 다짐

갑질 근절 ·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세부 실천 방안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주 나봄리조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과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무원 노조와 함께하는 두 번째 청렴 다짐 활동으로, 지방공무원 노조 50여 명과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에 청렴 자율 실천 다짐, 이해 충돌 방지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권한 남용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안내 등의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실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강사로 초청된 본청 이홍렬 감사관은 202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4개 전략과 11개 과제 추진으로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부정 청탁 및 부패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노조에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수능체제 평가 문항 출제 전문가 양성 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부터 사흘간 실습위주 밀착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31일 전주대학교에서 '2024년 수능체제 평가문항 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대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수능을 포함한 전국 단위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출제한 문항을 집중 검토·수정하는 실습으로, 수능 수준의 문항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152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4개 영역 11개 과목의 연수 프로그램이 17개 분반으로 구성·운영된다.

모든 분반의 연수생은 10명 이내로 편성해 분반별로 전문 강사 2명을 배치했다.

강사진으로는 수능 연계교재 수석 집필진, 국가 단위 시험출제 팀장 및 경력자 등 영역별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출제 전문가 34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수능 교수법 연수를 추가해 수능 지도 역량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어·수학·영어 3개 영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연수 자료는 영역별 4차시 총 12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 참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고 연수 내용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EBS 교재 집필진 및 검토진 추천, 전국단위 평가 시험 출제 및 검토 참여, 출제 연수 강사 위촉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올해 제2회 초 · 중 · 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내달 8일 도내 6개 권역서

오는 8월 8일 치러지는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가 발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6일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을 통해 공고했다.

특히 1회 검정고시부터 응시자의 시험장 접근 편의성 제고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도내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6개 권역 시험장은 전주온빛중학교와 군산중학교, 익산지원중학교, 정읍샘고을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다. 교정시설 시험장은 송천중고등학교와 전주교도소다.

제2회 검정고시 지원자 수는 총 1,118명(초졸 80명·중졸 161명·고졸 877명)으로, 온라인 지원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s://kged.go.kr)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초졸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과 필요시 도시락 등을 준비해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해야 하고,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전자담배·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검정고시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최종 합격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국 14개 글로컬대학협의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주에서 제1차 실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14개 글로컬대학협의회, 전주서 워크숍

글로컬사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방안 등 논의

전국 14개 글로컬대학협의회(회장교 전북대학교)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주에서 제1차 실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 중인 14개 대학의 사업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각 대학별 글로컬사업 전략을 상호 간 공유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글로컬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의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대학교 백기태 글로컬대학사업 추진단장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격차가 커진 현 위기 상황에서 지역과 지역대학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업"이라며 "글로컬대학협의회를 통해 글로컬대학 간에 협력을 이끌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